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 '종결'

'백현동 의혹'과 병합할 가능성 거론 체포안, 21일 보고 25일 표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가 수원지검의 두 차례 소환 끝에 마무리됐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더불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큰 줄기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지난달 17일 불러 조사한 뒤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병합해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혐의 보강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에도 성남지검이 수사한

성남FC 의혹을 넘겨받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전남 대북 송금 의혹 조사가 두 차례 소환을 끝으로 종결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집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요약본과 입장문을 통해 진술 외에 불증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진술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 인적·물적 증거가 탄탄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 일정을 바탕으로 검찰이 다음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석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림인데, 이 시기를 지나면 국정감사 등이 유로 연말에나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전 본회의는 18일(교섭단체 대표 연설), 20일(교섭단체 대표 연설), 21일(안건 처



리, 25일(안건 처리) 열린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6일까지 국의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결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주 초 구속영장 청구, 20~21일 보고, 26일 표결 일정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다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가결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야권 내에서는 탄압성 수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전남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여수해경,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 실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함께 해양 안전 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화순경찰, 치안사각지대 범죄예방 활동 강화

화순경찰서(서장 박 응)는 지난 7일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공원 산책로, 등산로 둘레길을 점검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12일 나주중학교 경문 앞에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양시 의용소방대, 사랑의 간식차로 소방관에 힘 실어줘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11일 광양시 의용소방대가 주관하는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통해 따뜻한 응원을 전달받았다고 하였다.

광양=김현근기자



무안소방,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평가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지난 7일에 무안행복초등학교와 함께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평가를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강진소방, 강진 가우도 쥘리안 민관합동 인명구조훈련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11일 강진군청, 강진점트랙(주)과 합동으로 쥘리안 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건보료 안 내는 中 피부양자 11만명...1인당 195만원 혜택

中 국적 피부양자, 외국인 전체 58.3% 차지 가입자 5명 중 1명꼴...건보재정 71.2% 투입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중국 국적자의 진료 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 1명당 투입된 건보재정은 195만원으로, 다른 국적자 평균(110만원)보다 85만원(77.3%) 많았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적이 다른 건보 피부양자 수는 18만9947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1만753명(58.3%)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 수는 56만8506명, 피부양자는 11만753명이다. 가입자 5명 중 1명은 피부양자가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 피부양자 수가 많은 국적은 베트남(7514명)으로 중국 국적자 대비 11배 차이가

났다. 미국(6967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각 5014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총 진료비는 1조5944억원으로 2018년(9980억원) 대비 약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공단부담금도 7478억원에서 1조1838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중국 국적 외국인의 국내 진료비 규모는 1조1192억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 8312억원이다.

연도별 공단부담금은 2018년 5275억원→2019년 6327억원→2020년 6477억원→2021년 732억원→2022년 8312억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슬비기자

전남 민간·공공건축물 내진율 10.6% 불과...전국 최하위

전남 지역 민간·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이 10%대를 기록,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파악된 광주·전남 지역 민간·공공건축물의 내진율 합계는 각각 18.6%와 10.6%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광주 지역 내진 설계 대상 12만 4304동(공공 2576동·민간 12만 1728동) 중 내진 설계가 마무리된 곳은 2만 3142동(공공 699동·민간 2만 2443동)에 불과하다.

이는 사용 승인을 받은 전체 13만 6243동(공공 3708동·민간 13만 2535동) 중 18.6%에 불과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16.4%)을 겨우 웃도는 수치다.

전남도는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물 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 수는 54만 195동(공공 1만 6290동·민간 52만 3905동)으로 집계됐는데 실제 내진이 확보된 곳은 5만 7189동(공공 2692동·민간 5만 4497동) 뿐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전체 66만 2943동(공공 2만6326동·민간 63만 6617동) 중 불과 10.6%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이며 연면적 200㎡ 규모로 이어지는 모든 주택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의무화된 내진 설계 기준이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내진율 확보가 더디다고 허 의원은 분석했다.

국토부가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최대 10%까지 견뢰·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호응이 미미하다고도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정부세종청사, 수요일엔 우리 수산물 먹는날

주 수요일을 '우리 수산물 먹는날'로 지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수산물을 배식하고 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비위축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한달동안 매